

상황
지침

- 4세 남아 박서준 환아가 가정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환아는 현재 어깨 골절이 의심되어 CT실에 촬영하러 갔다. 가정 폭력 의심 하에 환아의 어머니와 상담하시오).

[활력 징후] 혈압 : 90/65mmHg

맥박 : 80회/분

호흡 : 25회/분

체온 : 36.5℃

[응시자는 이 환자에게] 증상과 관련된 병력을 청취하고
추정 진단과 향후 진단 계획 등에 대해 환자와 논의하시오.

환자
교육

-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아이는 부모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이 크게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방관하게 될 경우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내원하도록 설명합니다.

시험관련
코멘트

가정 폭력 중에서도 아동 폭력 증례로 의료인의 경우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아동 폭력이 의심되는 환아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폭력은 증례에 따라 3번의 비밀 보장을 해야 하거나 혹은 아예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심각성 인지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상황은 보호자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심하게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 역시 배우자로부터 언어 폭력의 피해자로서 이 또한 가정 폭력의 일환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의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교육을 더 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실직 이후 음주가 가정 폭력의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음주 상담 혹은 가족 상담 권유해 봅니다.

성별/나이	남아/4세	
주소	“아이가 멍이 들고 어깨가 부었어요”	
Present illness	O	6달 전
	L	왼팔, 왼쪽 어깨, 전신
	D	-
	Co	-
	Ex	이번에 처음 알게 됨
	C	멍이 들고 왼쪽 쇄골 골절
	A	발달/성장 이상(-/-) 어린이집 다니고 있으며 또래와 잘 어울림 어머니 우울, 불안 약간있는 정도이며, 아이에 대한 걱정도 심하지 않음
남편과의 관계 및 폭력성	결혼 생활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나쁘지 않음
	음주/약물 남용	6개월 전 실직 후 최근 들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2~3병) 술 마신 뒤 아이를 때림
	폭력의 시작	집에서 TV를 볼 때 아이가 칭얼대면 때림
	폭력의 양상	빗자루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함 남편이 어머니는 때리지 않으나 욕설을 함
가족력 및 사회력	가족 관계	환아, 부, 모(3인 가족) 어머니는 일하며,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님, 친척이 어린이집 다녀 온 아이를 가끔 돌봐줌
	직업/경제력	6개월 전까지 맞벌이 남편은 6개월 전 실직, 후 힘들어짐
	배우자의 성격	남편은 고집이 센 편, 주변 사람들과는 원만한 관계
	이웃과의관계	주변에 친한 이웃 없음 아이 외조부모는 현재 외국에 거주
질문	-	
특이 사항	<p>멍, 골절이 다쳐서 생긴 것 같지 않다고 안심하고 이야기하도록 안심시키고 관계 형성이 잘 된 경우에는 비밀보장 1번 이후 가정 폭력을 털어놓기도 함</p> <p>보호자가 환아에 대해 걱정하고 때에 따라 울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면담 내내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음, 상황에 알맞게 대화를 끌어가는 게 필요함</p>	